도로 한가운데 자라는 풍치목의 후박나무

지정번호	제주-13-4-6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서귀포
수령	456년
수고	13m
흉고둘레	5m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293
33°26′56.09″N
126°52′51.57″E

제주도 수산리 마을은 2곳이다. 서북쪽의 애월읍 수산리와 동쪽의 성산읍 수산리이다. 보호수의 후박나무가 위치한 곳은 성산읍 수산리이다. 수산리는 고려 시대에 말을 방목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람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1300년대 초로 추정한다. 보호수 후박나무는 수산초등학교 서북쪽의 일반 도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만약 도로가 다른 한쪽으로 건설되었다면 이 후박나무는 마을 주민에게 쉼터의 그늘이 되는 정자목의 역할을 하는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이 후박나무는 풍치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무나이는 456년이다.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 500cm 정도이다. 줄기 밑동의 일부는 썩은 부분을 치료하여 다시 썩지 않도록 충전제로 채워놓았다. 가지는 넓게 퍼져 있다. 도로 한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태풍에 가지가 여러 차례 꺾여 나갔는데도 넓게 펼친 가지에 잎을 달고 있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길 건너에서 부채꼴의 나무 모양으로 볼 때가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나무 밑동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은 줄기는 본래의 가지가 아니라 새로 돋아난 어린나무이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무가 늙어서 기둥 아래쪽이 썩어 구멍이 뚫렸는데,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서 자랐다는 것이다. 후박나무는 껍질을 생약재로 쓴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 나무껍질을 수확하지 않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흑산도(가거도)에서 생산이 많았다. 예전에는 생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이 보호수의 껍질이 몰래 벗겨지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한다. 어느 해 태풍에 큰 나뭇가지가 잘려나갔다. 동네의 어느 어르신은 행정기관의 보호수 관리자에게 가지가 잘린 사실을 알리고, 동네에서 말끔하게 처리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다. 그러자 잘린 가지는 동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해도 된다는 담당 공직자의 대답을 받았다. 그 후 동네 어르신이 시내의 한약 재료상에 연락하자 상인이 와서 보고 그 나뭇가지를 현금으로 사고 갔단다.